

부패 조장 논란 '착한선물' 떼고 스티커 재배부 하기로

소비자 혼란 예방... 일부 문구 '국내산' 오인 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식사	3만원 → 3만원
선물	5만원 →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구분	기존	변경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직급별 구분 있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간당 20~50만원 국립대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의등 보완 신고 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년	신규채용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또는 재료 비중을 판단하는 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부패 조장 논란이 일던 '착한선물' 스티커의 명칭은 떼고 가격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만 쓰여진 스티커를 재배부한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 문구가 지칭 국내산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재차 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혼란을 예방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부터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단,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스티커의 무단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배부 전 '바른사용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동의서에는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김정옥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바른사용 동의서를 체크한 다음에야 (스티커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민약 성분과 다르게 (스티커를) 표시(부착)했을 경우 식품위생법과 표시·광고 등의 공정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결정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는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개설·운영한다. 김 장관은 "50% 기준을 알기가 애매한데다 당장 표시면의 50% 이하만 표시를 바꾸기도 어렵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나 우리 농민들과 직접 관련된 일인 만큼 저희가 (협의점을 찾는)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를 통한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식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식품외식 종합자금'을 지난해보다 3배 늘린 74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지를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 절감에도 적극 나선다.

구직자, 최대 희망연봉 4035만원... "3732만원은 돼야"

남성 4612만원 여성은 3334만원

올해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최대 연봉 평균은 4035만원이며, 최소 희망 소득은 3732만원 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자사 회원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직자들은 개개의 '직무지식'이나 '이전 직장의 임금 수준', '과거의 일자리 경험' 등에 따라 희망연봉 수준을 조정했다.

응답자들에게 '희망연봉을 결정하게 하는 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구직자들의 17.4%는 '직무지식 및 경험'을 가장 높게 평가

했다. 이어 '이전 직장 임금(15.0%)'이나 '과거의 일자리경험(12.1%)', '학력(11.5%)' 등 순으로 답했다. 또 9.6%의 응답자들은 '연령' 또한 희망연봉을 높게 책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꼽았다.

'성별'은 지원자의 희망연봉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남성'의 경우 4612만원을 제시한 반면, '여성'은 3334만원을 제시해 1300여 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신입직 구직자'가 평균 331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해 '경력직 구직자'는 4267만원 정도의 연봉을

기대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자'가 512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4082만원)', '초대졸(3635만원)', '고졸(3352만원)' 등 순이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서울권' 출신이 4148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희망했다. 이어 '영남권(4067만원)', '충청권(4054만원)', '경인권(3917만원)', '호남권(37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직무 별 희망연봉에서는 '건설·건축·토목·환경' 분야의 구직자가 4892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대했다. '전문직·법률·인문사회·인원'이 4833만원, '생산·경비·기능·노무'가 4807만원의 희망 연봉을 제시했다.

뉴스스



미세 먼지 잡는 다이슨 공기청정 냉, 온풍기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가 사계절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하 1층 다이슨 매장 등에서 공기청정 냉, 온풍기를 선보이고 있다. 다이슨의 핫앤콜 링크 공기청정 냉, 온풍기는 겨울에는 실내를 빠르게 고르게 난방하고 여름에는 개개인에 맞춰 강력하게 냉방하며 4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공기청정 기능까지 갖춘 3in1 상품이다. 매장에서는 1월 31일까지 핫앤콜 링크 공기청정 냉, 온풍기를 998,000원에서 898,000원에 할인 행사 중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인구 2.3명당 1대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252만8295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6년 보다 72만5000대(3.3%)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63만대(91.6%)이며, 수입차

는 190만대(8.4%)로, 수입차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료 종류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휘발유와 LPG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037만대, 210만대로 비중은 지속해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휘발유는 2011년 49.7%에서 2017년 46.0%, LPG는 2011년 13.2%에서 9.3%로 줄었다. 경유차는 등록 대수

가 958만대로, 증가세가 둔화(2011년 36.4%→2017년 42.5%)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6년 말 등록대수가 1만855대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2만 5108대로 1년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수소차도 지난해 말 170대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약 1.5%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월세 평균 69만원...서울 106만원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월세가 69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69만2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7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이

지역의 월세 인상률도 19.02%에 달했다. 이어 ▲경기 79만3000원(15.77%) ▲인천 70만4000원(11.04%) ▲부산 58만원(5.07%) ▲대전 55만2000원(5.34%) 등의 순이었다. 충북이 51만9000원(11.61%)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 48만4000원(13.35%), 전남 43만18000원(24.08%), 전북 42만4000원(10.07%), 경남 40만4000원(1.25%) 등의 순이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